

# 서평

김왕배 저, 『도시, 공간, 생활세계: 현대도시공간에 대한 재해석』

## 현대 도시공간에 대한 재해석: 계급과 국가권력의 텍스트 —김왕배의 ‘체험’과 이론적 형상화에 대한 평가—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 1. 도시사회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상실

도시사회학이 학문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는 언제쯤 될까? 시카고 학파의 인간생태학적 관점이 태동했던 1920년대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도시사회학의 정체성 확립근거는 ‘농촌과는 대비되는 도시사회만의 독특한 사회적 현상의 확장’에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국가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된 폭발적 도시화 현상은 ‘도시만의 독특한 사회현상의 존립’이라는 명제의 성립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이미 80~90% 이상의 도시화율을 달성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적 현상은 곧 보편적 사회현상’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 결과 농촌적 특성과 도시적 특성의 구별이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더군다나 “자유경쟁 및 자율적 조종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커뮤니티가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가설에 기초한 인간생태학의 기본틀이 더 이상 타당한 것이 될 수 없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도시사회학의 위상은 더욱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했던 카스텔(M. Castells, 1976)은 이미 25년 전에 과학으로서의 도시사회학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고 단언한 바 있

다. 실제적 연구대상과 이론적 탐구영역을 동시에 잃어버린 도시사회학의 종말을 예고한 것이다. 물론 모든 도시연구자들이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적 공간’이 여전히 사회현상의 중요한 분석단위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사회학적 관점은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학자들이 적지 않았다. 더불어 오늘날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구분에 기초한 사회적 차이보다 훨씬 의미있는 차이가 도시간, 그리고 도시내의 여러 부분공간들 사이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공간들 사이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던 초기의 도시사회학적 접근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권태환, 1984).

이렇듯, 카스텔의 절망적인 선고에도 불구하고, 도시사회학의 학문적 유용성은 부분적으로나마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분적 유용성이 학문적 정체성의 복원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방법론적 특수성이 확립되고, 새로운 연구영역이 분명하게 확립될 때 비로소 학문적 정체성은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

카스텔의 경고 이후 도시사회학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서구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1980년대 이후 대거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이론영역에서 그러했다. 인간생태학적 도시이론의 대안으로 등장한 다양한 신도시사회학적 관점들이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인간생태학에 기초한 초기 도시사회학의 주된 관심은 커뮤니티(communitiy) 내의 제반 변화를 인구문제와 관련시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래 인간생태학의 원초적 관심은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주변환경에 적응해 나아가는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인간생태학이 밝히고자 하는 인간과 환경의 완성된 적응 형태를 ‘커뮤니티’라 부른다. 인간의 주변환경에 대한 적응은 개인적 차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

이에서 발달된 다기화된 분업—즉 조직(생계조직 또는 직업을 의미함)에 의하여 완성된다. 따라서 적응은 집합적 산물이며, 그것을 설명하려는 인간생태학의 우선적인 관심 단위는 개인들의 집합체인 인구집단의 특성과 변화에 있었다. 그 동안 대부분의 도시연구(특히 한국의 도시연구)가 인구학자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이들 인구학자들이 도시현상(특히 도시화)을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인구문제와 관련된 전통적인 도시화의 의미는 여전히 학문 및 실용의 세계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도시는 인구의 성장과는 무관하게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에서 엄청난 성장(urban growth without population growth)을 보이고 있다. 초기의 도시사회학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해명코자 출현한 모든 시각들을 우리는 신도시사회학적 이론(new urban sociological theories)이라 일컫는다. 이에 속하는 관점은 참으로 다양하다. 네오-리카르디안의 시각, 공간노동이론(labour theory of location), 자본순환이론, 집합적 소비이론, 네오 베버리안 이론, 구조주의 맑시스트 시각, 사회적 공간관계분석의 시각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이 많은 시각들이 ‘신도시사회학적 관점’이라는 하나의 시각으로 통칭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학적 가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Gottdiener and Feagin, 1988: 174).

- ①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서로 적대되는 사회관계(antagonistic social relationships)에 의하여 지배된다. 따라서 사회는 외부영향에 의하여 변화하는 생물학적 단일공동체가 아니라 내재적 모순, 균열 그리고 불균등발전—이것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 자체의 논리로부터 나타난 현상들임—등을 그 특성으로 하는 고도로 분화되어 있는 층화된 조직형태이다.
- ② 사회발전은 적대적 소유관계를 갖는 사회 내부의 모순을 반영한다. 발전의 모순과 성장의 격차(inequities)는 적대감정을 유발시키고, 정치활동의 성격을 규정한다.
- ③ 권력의 불평등은 사회관계의 기본적인 요인이며, 권력의 행사가 사회발전의 결정요인의 하나이다.
- ④ 모든 사회분석은 과

거의 역사 또는 세계적 맥락을 준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사회분석은 결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신도시사회학적 관점’들은 공통적으로 위와 같은 가정에 근거하고 있지만 각각의 하위이론들이 도시사회 공간조직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은 차이가 난다. 예컨대, 네오-리카르디안과 공간노동이론은 도시 내부의 사회공간적 관계를 자본과 노동력의 필연적 결합의 산물로 파악하고자 하며, 자본순환이론은 도시공간의 특성이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더불어 집합적 소비수단이론과 구조주의 맑시스트들은 도시공간의 변동과 발전을 집합적 소비수단의 재생산과정 및 국가와 자본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사회공간관계분석의 시각은 생산력과 생산관계,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국가관리의 행동, 그리고 공간배열(spatial configuration—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 활동의 양태와 위치)이라 불리우는 사회공간관계의 분석이 도시발전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주장한다.

신도시사회학적 관점의 출현은 기존 도시사회학의 이론적 교착상태를 해소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주체들을 도시사회학의 연구대상에 포섭시켜 주었다. 도시정치, 도시운동, 생활세계, 도시계획, 도시경관 등에 대한 연구들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 3. 김왕배의 ‘체험’과 이론적 형상화

서구학자들의 도시사회학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학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단지 서구이론들을 소개하거나, 그것들을 우리 현실에 단편적으로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고작이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최근 출간된 김왕배의 저서—『도시, 공간, 생활세계: 계급과 국가권

력의 텍스트 해석』-는 힘빠진 우리 도시사회학계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고 있다.

그가 서론에 밝히고 있듯이, 김왕배의 도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어린 시절의 체험으로부터 비롯된다. 1970년대 서울 남부 변두리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그는 도시의 어두운 구석을 속속들이 경험한다. 시장바닥을 뒤적이며 시래기 국거리를 줍는 아낙네들, 산허리에 걸린 뻑뻑한 판잣집들, 수많은 행상과 노점상들, 삶에 지쳐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린 동네 노인네 등등-그가 체험한 도시는 악(惡),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강 너머 부자촌에서 자신의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공간을 발견한다. 그곳은 “...냄새와 빛깔, 그리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달랐다”고 그는 술회한다.

이와 같은 ‘도시 내부의 공간적 불평등’ 문제 이외에 그의 학문적 관심을 자극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그가 어린 시절 보낸 고향 마을(浦口)의 급속한 변화(간척사업 및 그에 따른 주변지역의 거센 산업화 바람)에 대한 체험이 그것이다. 그의 고향을 변화시킨 직접적인 힘은 대기업의 ‘자본’이었고, 간접적인 힘은 개발자본의 유입을 가능케 한 ‘국가권력’이었다. 도시사회학자로 성장한 김왕배는 어린 시절 체험한 이 두 가지 현상-① 대도시의 공간적 불균형과 ② 자본 및 국가권력에 의하여 창출되고 변화하는 도시공간 및 도시인의 생활세계-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을 시도하는 것을 평생의 숙제로 삼은 듯하다. 금번에 출간된 그의 저서는 바로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이리라.

김왕배가 자신의 체험을 이론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하여 등을 기댄 곳은 ‘구조주의 맑시스트 정치경제학’과 ‘도시문화 일반이론’이다. 사실 그동안 그는 일관되게 구조주의적 시각에 서서 도시 및 지역 문제를 설명하고자 시도해왔고,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발표해왔다. 이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시각은 생산과 소비, 노동과 자본의 계급관계, 국가개입, 자본주의 축적위기와 모순 등과 같은 개념들을 이용하여 도시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시각은 그가 어린 시절 서울의 변두

리와 자신의 고향에서 얻은 체험과 느낌을 형상화해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던 값진 이론적 자원임에 틀림없다.

다음으로 그가 현대도시의 생활세계의 특징들—예컨대 전이성, 유동성, 우연성 등—을 규명해내기 위해 의지한 곳은 ‘도시 일반문화이론’이다. 사실 도시문화이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본 논평자가 보기에 그는 이 개념을 도시성(urbanism) 이론, 현상학적 사회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기호학, 구조화론, 아비투스(habitus), 포스트포디즘의 문화론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문제의식을 규명하기 위해 과연 그가 올바른 이정표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논의는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그의 저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하자.

#### 4. 이 책의 내용

이 책은 모두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서론)은 생활세계로서의 도시공간을 바라보기 위한 인식론적, 방법론적 논의를 전개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저자는 현대 도시공간 및 생활세계의 특징을 밝히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정치경제학과 문화이론을 접맥한 총체적 인식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제2장(시공간의 사회성과 도시문화)은 시공간의 문제와 도시문화를 관련시켜 근대적 도시공간의 특성(공간의 근/현대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시공간이 어떻게 사회성을 갖게 되는가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은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도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작용하는 계급 및 국가권력의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저자는 개화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근/현대성의 모습을 시공간 경험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추적하고 있다. 제3장(일상생활세계와 생활정치)은 일상생활세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생활정치를 논의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 장

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현대인들의 일상세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확대(일상세계의 광역화 현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얻은 결론은 의외로 평범하다. 세계화 추세에서 연유된 소비자본주의의 확산이 그것이다.

제4장(계급과 국가권력의 텍스트로서의 도시공간)은 제목이 암시하듯이 도시공간의 표현체들(건축, 거리, 광장, 쇼핑몰, 지하철, 교회당 등)에 투영된 제반 권력들에 대한 의미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작업과 관련된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규명하고자 하는 도시공간의 근/현대성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도시의 물리적 표현체들을 통해서도 재현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궁극적으로 본 장에서도 저자는 일관되게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국가권력의 필요에 따라 도시공간의 근/현대성이 결정됨을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그는 ‘여의도의 공간’ 읽기를 시도한다. 그는 여의도의 공간적 특성을 비인간적이고, 오만하며, 지극히 권위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정적 공간형성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권력과 계급의 힘이 반영된 것이라고 힘차게 주장한다.

제5장(정치경제학과 도시공간)은 서구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도시정치경제학 이론의 내용과 함의를 밝히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이론은 집합적 소비수단, 잉여, 자본순환, 국가개입 등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생성과 갈등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구조주의 맑시즘으로부터 배태된 것들이다. 본 장의 후반부에는 이러한 이론적 자원에 근거하여 한국의 국가주도 자본축적 과정에서 도시 및 지역의 구조가 어떻게 구조화되었고, 변화하였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제6장(계급, 공간, 생활세계의 불평등)은 계급과 도시생활세계의 불평등을 논의하는 부분이다. 이 장의 전반부는 특히 현대인의 생활세계를 지배하는 ‘상품의 소비행위’가 계급형성과 재생산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임을 주목한다. “상품의 소비는 단순한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로서 상품 속에 내장되어 있는 사회적 의미, 즉 상징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고급 수입자동차, 유명

화가의 미술품, 고급 의류 등은 상류계급의 상징물이며, 그들은 그러한 상품의 소비를 통해 타계급과 구분짓기를 시도하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계급영역을 형성한다. 이렇듯 소비의 차이는 계급의 구조화를 진행시킨다.” 단순한 상품의 소비를 넘어 공간(주거공간, 상가, 생산공간 등) 분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현대 도시계급의 구조화를 반영한다. 저자는 특히 공간분화의 불평등 실상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의 서래마을, 성북2동, 평창동 등 소위 ‘서울의 베버리힐즈’와 영등포동, 돈의동, 창신동 등에 분포되어 있는 도시빈민들의 ‘쪽방’의 생활을 대비시켜 서술하고 있다. 6장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시야를 더욱 넓혀 전국적 차원에서의 공간적 불균등(지역불균등 성장) 역시 계급 및 자본의 지역적 차등배열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7장(도시정치와 지역운동)에서 저자는 도시(또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의 관계, 즉 도시(지역)정치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는 도시정치를 단순한 행정행위나 정치행위가 아니라 산업화, 자본축적, 계급구조,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망 속에서 펼쳐지는 포괄적 행위로 규정하고 그것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장의 후반부에는 지역정치의 포괄적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지역주민운동의 사례 및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공동체 이념과 현대사회에서의 그 의의(제8장)를 밝히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 5. 김왕배의 작업에 대한 평가

훌륭한 학술연구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주제의 선명성과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간결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왕배의 이번 작업은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왜 그럴까? 저자의 지나친 욕심 때문으로 보인다. 저자의 목적은 도시학 개론서를 꾸

미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시현상과 관련된 모든 영역(생활세계, 문화, 정치, 지역불균등, 경관 등)을 이 책에 포함시켰다. 주제의 방만성을 저자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도시현상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다. 그는 주제의 방만함으로 비롯된 혼돈이 총체적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치경제학적 접근과 문화이론의 접맥을 통하여 도시현상의 총체적 인식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접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다. 두 가지 이론적 자원이 융해되어 적용되고 있다기보다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단순하게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본 논평자가 보기에 저자의 저술 의도 및 책의 제목과 가장 부합하는 부분은 제1, 4, 5, 6장 정도이다. 나머지 장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만약 제1, 4, 5, 6장의 내용을 확장하고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폭을 넓혀 하나의 책으로 묶었다면 주제의 선명성은 확연하게 보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자의 이론적 인식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는 별도로 남는다. 저자는 특히 1960년대 이후 출현한 한국의 모든 도시(및 지역)현상은 국가권력과 계급의 영향력에 의하여 창출되고 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것은 서구의 구조주의 맑시스트 도시이론의 영향이다. 이러한 저자의 인식은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도 구조주의 도시이론이 갖는 본원적 한계 때문에 저자의 인식은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 구조주의 이론은 도시공간의 출현 및 변화의 과정이 자본주의를 추동하는 두 가지 힘—국가권력과 계급관계—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모든 국가의 시책과 사회정책의 결과는 항상 친자본주의적(the pro-capitalist outcomes of the state policies)’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공간정책(도시개발, 국토개발 등)은 항상 자본가와 기득권층의 이익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극단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따라서 저자는 자신의 이론적인 이정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학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 학문 분야에 시장논리가 개입되기 시작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학의 위세는 크게 위축되었다. 비록 이것이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지난날의 인기를 반추해 볼 때 요즘 사회학자들이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하물며 정체성의 위기마저 심하게 느끼고 있는 도시사회학계의 분위기는 어떠하겠는가? 한마디로 참울하기 그지없다. 금번 김왕배의 저서는 분명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켜 줄 수 있는 산뜻한 청량제와도 같다. 특히 이번 저서를 통하여 그는 도시사회학의 관심영역이 크게 확장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논평자는 이 점을 이 책이 기여한 최대의 장점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사실 인구학에 기초하여 출발한 도시사회학은 연구영역의 편협성과 진부함 때문에 그 동안 학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흥미로운 관심영역을 도시사회학의 새로운 범주에 포함시킨 그의 저서는 신세대들의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서구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생활세계의 불평등 문제’, ‘도시경관 읽기’, ‘공간 불균등발전의 계급적 의미’, ‘국가권력의 공간조작’, ‘도시정치’ 등의 문제를 도시사회학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그의 공로는 학문 후속 세대의 재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권태환. 1984, 「한국사회학에 있어서의 도시연구」, 《한국사회학》 제18집, 한국사회학.
- M. Castells. 1976, "Is There an Urban Sociology?" in G. Pickvance(ed.), *Urban Sociology*, Tavistock.
- Gottdiener, M. and Joe R. Feagin. 1988, "The Paradigm Shift in Urban Sociology," *Urban Affairs Quarterly*, Vol. 24 No. 2, pp. 163-187.